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7.20원 상승한 1,311.20원에 마감

5일 환율은 전일대비 7.20원 상승한 1,311.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5.60원 상승한 1,309.60원에 개장했다. 미국 국채 금리 및 달러 반등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1,310원을 중심으로 양방향 수급을 처리했다. 오후 들어 환율은 장중 위안화와 호주 달러 등 주변국 통화 약세가 이어졌고, 역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추가 상방 압력을 받았다. 다만 네고물량이 유입되면서 장중 고점대비 상승 폭을 축소하며 1,311.2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6.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92.83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09.60	1314.40	1308.10	1311.20	1311.7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885.30	894.65	884.90	890.72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12.75	1425.05	1412.10	1415.45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95	-6.76	-13.89	-26.2
결제환율(수입)	-1.27	-5.7	-12.26	-23.41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달러화 강세에...1,310원 중반 회복 시도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2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11.20) 대비 3.00원 상승한 1,312.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 및 위안화 약세 영향에 상승이 예상된다. 유로화는 ECB 매파 위원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자벨 슈나벨 ECB 이사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내년 2분기 ECB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시장은 3월로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기기 시작하면서, 유로는 약세를 보였다. 이에 밤사이 달러화는 반등하였으며, 전장 국내장 마감보다 0.35% 상승한 103.9대를 기록

했다. 아울러 위안화는 신용등급 전망 강등 이후 낙폭을 확대하면서 오늘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 약세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급 상 수입업체 결제수요도 금일 환율 상승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 등은 여전히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10.00 ~ 1318.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93.4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00원 ↑
	■ 美 다우지수 : 36124.56, -79.88p(-0.2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20.4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473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